

## 마르타와 마리아



“자, 이사람이요.” (요한 19,5)

촬영 : 정지순 바오로 | 살레시오 기자

루카 복음 10장 38-42절의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 흔히 활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마르타와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마리아를 조명하며 활동생활과 관상생활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좋은 몫을 택한 마리아에게서 관상생활의 우위를 찾아냅니다. 복음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르타는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10,40)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10,39)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인 사람은 마르타이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초대를 수락하십니다. 그런 마르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발 씻을 물을 내오고 드실 음식과 마실 음료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진한 정성으로 갖가지 시중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르타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굶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봉사에 울화통이 터진 마르타는 자신을 도울 생각도 없이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르타와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10,42)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속을 불편하게 하는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시선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봅시다. 마르타 자신은 분주히 시중들고 있는데도 마리아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엔 예수님께 머물러 있던 마르타의 시선이 어느 순간엔가 마리아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시중을 드는 일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또 마음을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르타도 시중을 들면서도 오로지 예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마리아를 보면서 불평하는 대신 마르타의 영혼도 찰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맨발의 가르멜회 ‘부활의 롤랑’ 수사가 ‘서원 후 15년 동안 파리 공동체의 요리사’로서 이어 “신발 수선의 임무”, 다음에는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조달하는” 소임을 하면서 “항상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통해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하느님의 현존 연습”, 11-15참조)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때로는 지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자매가 보여주는 모습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기가 꺾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우쭐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빼앗긴 시선과 마음을 다시 돌릴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것과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보며 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16)

교회를 믿나다(2)

교회에 대한 개념들 가운데 먼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하느님의 나라를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계약이 맺어져 ‘새 하느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펼쳐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에페 1,23)라는 말씀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몸(교회)은



머리(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요한 15,1-6)에서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교회 또한 예수님과 결합 되어 있을 때에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영혼처럼 머무르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즉 구성원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102 참조) **금빛**

교황님 한 말씀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혹평”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만약 우리가 생명의 밭을 일구고 싶다면, 먼저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손수 황금빛 태양 아래에서 입맞춰 뿌리신 아름다운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 2023년 7월 23일 연중 제 16주일(밀과 가라지의 비유) 삼중기도 혼화 중 -



본당 소개

김천 지례성당



경북 김천시 지례면 교리에 위치한 지례성당(주임신부:박진수 시메온)은 5대리구 3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소속 공소는 황점, 대덕, 부향, 서무터 네 개가 있습니다. 1968년에 설립된 지례성당은 투르의 성 마르티노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평균 90-110여 명 교우들이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아담한 성당입니다. 교우들 대부분은 60대 후반이며, 가장 고령의 신자는 서무터 공소에 사시는 107세 할머니이십니다.

박진수 시메온 주임신부는 “하느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본당”을 사목 표어로 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으며, “공소가 점점 유명무실해지면서 5개 지역으로 전환하여 연령에 관계 없이 지역 중심으로 주일 전례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공동체 아닌 소공동체”라며 본당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지역별 연도 바치기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포상으로 활력을 더 하고 있다고 덧붙여 전하였습니다. **금빛**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thy Kingdom come

[영어] 다이 킹덤 컴



くにきみ国が來ますように。

[일본어] 미쿠니가 키마스 요 - 니



愿你的国来临。

[중국어] 위엔 니 더 귀 라이 린



Nước Cha trị đến

[베트남어] 느억 짜 치 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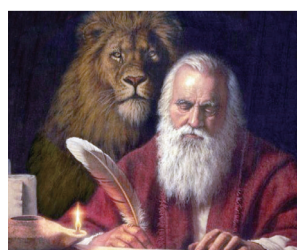


venga a nosotros tu Reino

[스페인어] 벵가 아 노소프로스 투 레이노

교회의 상징들

사자-마르코의 상징



그리스도교회 회화에서 마르코는 대개 복음서를 지니고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사자의 모습은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마르 1,3)로 표현한 데서 유래하는데 예술적 전승은 그 소리를 사자의 울음으로 비유하였다. 날개는 네 개 달린 ‘생물체’에 관한 예제키엘의 환시를 네 복음사가에 적용시켜 이해한 데서 비롯한다. 그 외에도 교회미술에서 그는 책 또는 두루마리나 긴 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많이 표현된다. **금빛**

찬미받으소서(14)

# 보편적 친교



▶ 읽기  
 89항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주인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지혜11,26) 이것이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룬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 생각하기

Q. 보편적 친교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중요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든 존재와 결합시켜 주신 유대를 깨닫고,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와 일치 이루며 더불어 살아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

스코 성인은 이러한 보편적 친교의 모델입니다.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따뜻한 애정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나에게 간혀있지 않고 너에게 열린 삶을 사셨습니다. 성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구를 돌보려는 노력은 효율적인 ‘관리’에 앞서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운명은 결국 우리와 지구 공동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 실천하기

모든 피조물을 ‘형제’나 ‘누이’로 부르시며 열린 삶을 사셨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성인의 생애 영상을 보며 우리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배워 보도록 합시다. 더불어 “지구를 구하자”라며 외치기 전에 먼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처럼 지구와 ‘친구’가 되어 봅시다.



[영상]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프란치스코의 작은나무)

생태 영성 (7)

# 창조의 문법 3 : 친교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포함해 그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찬미받으소서』 66항에서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질은 원소들의 연결이고, 지구와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존재한다. 이 연결성 안에 존재하는 ‘상호 친교’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조화’는 그 관계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바로 부모님의 친교와 사랑의 관계로 인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특징은 관계성 안에 존재하시며 사랑의 친교로 일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생태 영성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이것을 세 번째 창조의 문법인 ‘친교’로 표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날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으며 특별히 인간과 자연이 맺어온 본디의 조화로운 관계 또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다른 피조물과 맺은 가족 정신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를 묵상하고 따르려 할 때 지금의 충돌을 완화하고 생태적 회심을 통한 친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하느님이 심어주신 내재적 가치인 ‘주체성’을 가진 ‘다양’한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각 존재의 연결성인 ‘친교’ 안에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윤 에피파니아 수녀 (예수성심시녀회)

틴스타 (1)

# TeenSTAR를 찾아서 별을 찾아서(1)

틴스타

어느덧 틴스타를 만나지 10여 년이 넘었다. 본당에서 교리 교사를 하면서 자모 회원들이 자녀들의 성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가톨릭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면서 올바른 성교육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때였다.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WHY” 책을 침대 밑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는 시리즈 중에서 특히 “성”에 대한 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책은 유독 많아있었다. 남편에게 “아이가 성에 대해 유독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방문을 잠그기도 하는 것 같아”라고 했더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두 아이를 위한 염려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주보를 통해

교구청에서 진행되는 ‘TeenSTAR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틴스타를 만나고 느낀 것은 ‘내가 너무 나의 몸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엄청난 사실이었다. ‘내가 나의 몸과 감정의 변화를 잘 모르고 어떻게 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인가?’ 또한 ‘어떻게 여자인 내가 남자 아이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성인으로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자 ‘틴스타’ 라는 세계에 폭 빠져서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61호에 계속)



김외택 헬레나 (청년청소년국 틴스타강사)

부부 이야기

# 주님께서 주신 선물

저는 직장에서 올리안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새로 입사한 올리안나는 눈이 동그랗고 푹푹푹푹한 얼굴에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올리안나도 마음을 열었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인어른께서 “자네, 올리안나랑 결혼하려면 꼭 세례를 받고 성당을 다녀야 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힘차게 “네!”라고 대답했지만, 결혼 후 직장생활에 바쁘고 육아에 지쳐 장인어른과의 약속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제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어 올리안나는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아이들 육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잠시 냉담 중이던 올리안나가 성당에 다시 나가고 아이들 유아세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잦은 회식 등으로 귀가가 늦었던 저로서는 올리안나가 성당에라도 가면 의지할 곳이 생길 것 같아 흔쾌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결혼 전 장인어른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이 죄송스러워 올리안나에게 일단 성당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성당은 저를 무언가 부드러운 기운으로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 들어간 성전에서 추운 겨울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을 느꼈으며, 왜 이제야 왔냐고 반겨주는 친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반을 신청하고 그해 성탄절에 ‘올리오’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본당 선배 부부가 ‘ME주말’을 권했습니다. 한 번 가보면 부부사이가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저희 부부는 가끔 싸우긴 하지만 금방 풀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왜 가야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10년이 된 지라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ME주말’ 프로그램을 받는 동안 저는 무언가 우리 부부관계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배우자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고, 그동안 서로 속마음과는 달리 상처 주며 살아왔구나 생각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또 ME 발표부부로 봉사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생각됩니다. ‘ME주말’을 통해 하느님의 도구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른분들도 ‘ME주말’을 통해 서로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성훈 올리오, 윤은주 올리안나 부부 (ME 대구협의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1,28)

###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

## 옛 운동회 날의 추억



1969년 큰 아들 가을 운동회(고령 국민학교)

옛날 운동회 날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잔치 날이다. 맏아이는 운동회에 미리 나가고 둘째는 손잡고, 막내는 등에 업고 서둘러가는 길은 마냥 즐거웠다. 운동장에서는 스피커 소리에 영차 영차 줄다리기 소리, 이겨라 이겨라 응원 소리에 발걸음이 바빠졌다. ‘손님 찾기’를 하는 학생이 소리를 지르면 혹시 나를?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한다. ‘바구니 터트리기’를 한 후 점심시간이 되었다. 싸운 김밥, 삶은 계란, 사이다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들 녀석은 상으로 받아온 연필, 공책을 자랑하며 신이 났다. 씩씩하고 든든하게 생각되었다. 빛바랜 가족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사랑하는 남편 바실리오씨 우리의 분신 다니엘, 미카엘, 엘레나 우리 매일 매일 파이팅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가톨릭 금빛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가족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3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정자 엘리사벳 (상인성당)

### 추억속으로

## 1945년 광복 행사



대한민국정부수립 대구준비위원회 경축행사



대한민국 신탁통치 결사반대 거리 시위

(제공: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16)

## 자녀를 믿고 기다리면 정말 다 되나요?

**참가자:**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데 정말 믿고 기다리면 다 되나요?”

**에 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참가자:** “예, 답답하고 불안해요. 여기저기서 자녀를 믿고 기다리라고 해요. 저도 좋은 말인 줄 알고 믿어 보지만 매번 실망하다 보니 솔직히 이젠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려요.”

최근 부모교육 현장에서 질의 응답시간에 나는 대화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믿어야 한다면 먼저, 하느님의 선물인 자녀는 자기만의 가능성을 품고 되어가고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부모가 자녀의 시도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녀의 노력에 기뻐하면 그 믿음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낯설거나 어렵고 결과를 빨리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지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과거에 누군가 나를 믿어주었던 기억, 어떤 순간에 어떻게 믿어주었는지를 기억해 보는 것은 어려움과 불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부모가 ‘너를 믿어’라고 나에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부모의 믿음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긍정적인 경험도 있지만,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또는 하지 말았으면’하는 부모의 기대가 담기면 자녀에게 ‘믿는다’는 말은 강요나 맹목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믿는다고 애

기하며 자녀가 어떻게 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면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대에 실망하면 어떤 감정이 들었고 그 감정의 크기는 어땠는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통찰이 있는 자신과의 소통과 ‘자녀를 위한 기도’처럼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는 ‘자기 마음’과 ‘자녀는 가능성을 품고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수록 발달단계에 달라지는 자녀의 언어에 경청하기 쉬워지고, 자녀의 감수성과 행동에 민감하고 안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자녀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의 고유한 특성을 잘 알아보고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자녀에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녀만을 위한 기다림의 방식과 기다림에 필요한 시간을 받아들이면 부모는 인내할 수 있고 자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불안한 순간이 오더라도 부모의 믿음과 기다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에 기대어 불안을 달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믿음을 준 부모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알아가는 자신으로 살 것입니다. 자녀를 믿고 기다립시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고맙습니다.



편지글

## 사랑하는 할머니께 - 중학생 손녀가 농사지으시는 할머니께 -

할머니 더운 여름 건강히 잘 계신가요?

언제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 밭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할머니께서 비닐하우스에 고추도 심고 밖에는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 식재료들을 직접 키우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 수확물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작은할아버지 댁과 고모 할머니 댁 등 친지들에게도 나눠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져요.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날이 더워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셔야 하시니 고생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다리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땀 흘리시며 농사지으시는 것을 보면 더욱 존경스럽지만 힘드시실 것 같은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속상하긴 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농사지으신 음식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감자는 할머니가 직접 키우신 것이라서 더욱 맛있게 느껴져요.

물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들이 제일 맛있기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힘드시면 조금 쉬어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호해 드리

고 싶을 정도로 할머니가 아픈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제가 말도 잘 안 듣고 할머니 속상하게 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할머니 말도 잘 듣고 마음 아프게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저를 위해 힘써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추억이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와 함께해 주세요. 할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함께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여은제 글라라**  
(가천성당)



할머니와 손녀 여은제 글라라

※ 가톨릭 금빛신문은 독자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700자 내외의 편지와 가족사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공식 로고

#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문 요약

## -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 -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미사 후 총대리 주교와 고령성당 공동체(2023. 07. 23)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주제인 이 말씀은, 우리가 젊은 마리아와 나이 든 친척 엘리사벳 사이의 복된 만남을 되새겨보게 해 줍니다. 올해 세계 조부모

와 노인의 날이 세계청년대회와 가까운 날에 거행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권고합니다. 그 만남-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관하여 묵상하고, 젊은 성모님과 나이 든 세례자요한의 어머니 사이의 그 포용을 그려보고 빛나는 표상으로 정신과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다음으로 저는 조부모와 노인을 포용하는 구체적인 몸짓을 취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노인을 공경합니다. 노인들과의 동반을 거부하지 말고 노인들에 대한 우리의 동반을 거부하지도 맙시다.

노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그들에게도 또 온교회에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청년대회를 거행하려는 청년들을 동반하십시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형제 자매 여러분, 큰 사랑을 담아 여러분께 저의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금빛**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담화 및 기도문

### 활기찬 노년

## 성요셉 평생대학



성요셉 성당(주임신부 : 이찬우 다두) ‘성요셉 평생대학’(매주 금요일 10:00-13:00)을 소개합니다. 2023년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과 13명의 봉사자가 성경교육, 노래교실, 동시쓰기 등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성지순례, 운동회, 영화감상, 성경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3년 간 열리지 못했던 ‘실내 미니 운동회’를 다시 열어 다양한 게임을 하고, 여름 방학을 맞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일 잔치도 진행하였습니다.

학장인 현영식 펠릭스 형제는 “본당의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주님 안에서 은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자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교육 봉사자들, 그리고 주방 봉사자들의 큰 도움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 : 이주엽 다니엘 | 살레시오 기자

### 노년의 향기

## 하느님의 부르심

독실한 불교 집안 7남매 막내인 남편과 결혼했다. 첫아들을 낳으니 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며 즐겁게 살았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심한 통증을 동반한 하혈이 계속되니 온 집안 식구들이 많은 걱정을 하였다. 그러던 중 시누님이 점쟁이를 찾아가 부적을 가져와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하였다. 또 천주교에 다니면 45세 쯤 죽는다고도 하면서 부적에 의지할 것을 더욱 강요했다. 그러나 나는 용감히 시택 식구들에게 미신 따윈 안 믿는다고 하였으며 성당에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은 이종사촌과 함께 성당에 다니고 있었던 바 아들과 함께 성당에 다니면서 교리를 열심히 배워 1984년 12월 24일 영세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입교하여 세례를 받고 성가정이 되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비이다. 고통을 통해서 저를 당신 자녀로 불러주셨다. 나는 하느님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은총 속에 살고 있다. 본당 세례식 때마다 대녀가 한 명씩 늘고 있다. 영적 가족이 늘어나니 얼마나 든든한지 흐뭇하다.

마더 데레사의 말씀이 생각난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 사랑의 열매는 봉사’ 앞으로 나는 예수성심 시녀회 봉사회원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한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진순주 카타리나 (삼덕성당)



※ 가톨릭 금빛신문은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5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구청(성모당) 정문 차량 출입 통제 안내

시행일자: 2023년 8월 1일 ~ 공사 종료 시까지



교구 신청사 건축공사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 정문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 ▶ 정문차량 통제로 인해 보행자만 출입가능 (공사기간 버스 진입 불가)
- ▶ 1,2주차장 사용 불가, 3주차장만 사용가능 ▶ 성모당 순례객은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모당 미사(오전 11시)와 상설고해소(오후 3시)는 변동 없음

노년의 이해

### 성숙한 노년을 만드는 힘

“가려무나 가려무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으니, 세월아 가려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처럼”

가수 김태원이 쓴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라는 노랫말의 일부이다. 이 노래는 10여 년 전인 2011년 모 방송국 TV 프로그램에서 ‘청춘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단원을 모집해서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불렀던 곡 중 하나이다. 단원 평균나이 약 62세, 최고령 단원은 84세였다. 합창의 맨 마지막에, 84세의 최고령 단원이 걸어 나와 홀로 부르는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처럼”이라는 가사는,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의 담담함만큼이나 울림도 깊었던 기억이 난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노년기로 접어들면 이러한 담담함은 절로 생기는 걸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지혜롭게 되는 걸까? 노년학을 전공한 필자도 이 부분이 늘 궁금해서 여러 연구나 서적이 나올 때면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는 중이다. 확실한 것은 나이와 적응력은 관계가 있으나, 나이 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필자는 생에 의미를 찾고, 부여하

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성숙한 노년이라는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 힘은 아무나 가질 수 없으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세월이 부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생에 이유를 가진 자는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어머니, 아내, 동생을 잃은 유명한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면서, 니체의 이 말을 인용했다.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는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나이가 든다고 모두가 의연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젊은 날을 살아내고, 어려운 날을 견뎌내고, 어제를 보내고 오늘을 맞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노년의 멋진 말을 다시 되뇌어본다. “가려무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으니, 세월아 가려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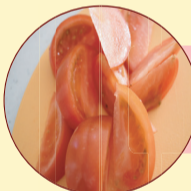
민주홍 글로리아  
(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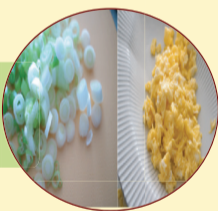
###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 토마토 달걀 볶음

재료: 토마토 1개, 달걀 2개, 대파 작은 것 1개, 간장 및 참기름 약간, 굴 소스 1/2숟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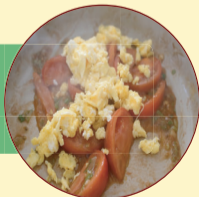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은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주고 꼭지를 제거하여 반을 자른 후 먹기 좋게 등분한다.



계란은 풀어서 계란물을 만든 다음 가볍게 가열하여 스크램블을 만들어 덜고 파는 작게 썰어서 준비한다.



팬을 가열한 후 파를 먼저 넣어 파기름을 내고 굴 소스를 따로 부은 후 기포가 올라오면 토마토를 먼저 넣어 볶는다.



굴 소스와 파기름, 토마토가 잘 어우러지게 볶은 후 계란을 넣어 잘 어우러지도록 다시 볶아준다.



간이 안맞으면 간장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더 한 후 살짝 더 볶아주고 마무리한다.

**Tip!**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눈 건강 및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으며, 다이어트와 면역력 강화에도 연관성이 있는 식품입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완전 공복상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합니다.

### 산책로

## 경산 남매공원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위치한 경산 남매공원은 조선시대 전설로 내려오는 오누이를 기억하기 위해 명칭된 ‘남매지’의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영남대 캠퍼스와 인접해있기도 한 이곳은 음악분수와 바닥분수, 그리고 물놀이장을 갖춘 공간이며 다양한 형태의 버스킹 공연도 활발한 곳입니다. 여름에는 연꽃도 함께 볼 수 있고, 밤에는 음악분수 레이저쇼와 사연소개 및 신청곡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월요일 휴무) 평탄한 산책로와 함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주변에 커다란 주차장도 갖추어진 이곳에서 무더운 여름 속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금빛**



- 자 가 용**  
'경산시 남매공원' 검색 (성모당 기준 50분)
- 대중교통**
- 지하철** 대구 2호선 → 임당역 → 도보 10분(성모당 기준 56분)
- 버 스** 남산역건너 정류장 → 버스(509번) → 경산시청별관 건너 정류장 → 도보 8분(성모당 기준 1시간 20분)

###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가톨릭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들!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가족성지순례 (16)

#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 숲정이, 배다리, 백지사 터 -



전북 익산시에 있는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는 무진박해(1868년) 순교지이다. 치명일기에 의하면 전주교구 순교자의 절반은 이곳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에서 순교한 분들로 23명이나 된다. 이 성지는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은 순교자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간 ‘하늘의 문’이다. 세상의 힘이 성령의 활동을 막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곳으로 ‘성령의 순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참수형을 당한 숲정이는 ‘불의 순교지’, 수장형을 당한 배다리는 ‘물의 순교지’, 백지사형을 당한 백지사 터는 ‘바람의 순교지’로 알려져 있다.

하늘의 문 성당 안의 ‘순교자의 모후 제대’는 무진 박해 순교 150주년과 본당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2019년에 설치되었는데 제대의 형상을 보면 위쪽에는 여산의 일곱 순교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곱 성상과 아래 일곱 개의 조각상은 성모칠고를 표현하여 여산의 일곱 순교지(여산옥, 숲정이, 뒷말, 배다리, 장터, 기금터, 백지사 터)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성당 입구 성수대는 십자가의 길 14처 중 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의 뜻을 의미하는 예수님상이 있어 필자는 성수를 찍을 때 마음이 숙연해지며 미사 참례의 은총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순교자의 흔적이 묻어있는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로 무더운 여름 가족 성지순례를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살레시오 기자

### 가는길

- 자 가 용** 네비게이션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검색(성모당 기준 2시간 35분)
- 대중교통** 버스 고속버스(익산공용버스터미널) → 버스(222-1) → 여산합동정류소 하차 → 도보 5분 (성모당 기준 5시간 10분)

## 60호 가정미션 :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 인근 본당을 찾아 가족이 함께 미사를 바칩시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 남북통일은 되어야 할까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3.07.30(주일) - 2023.08.13(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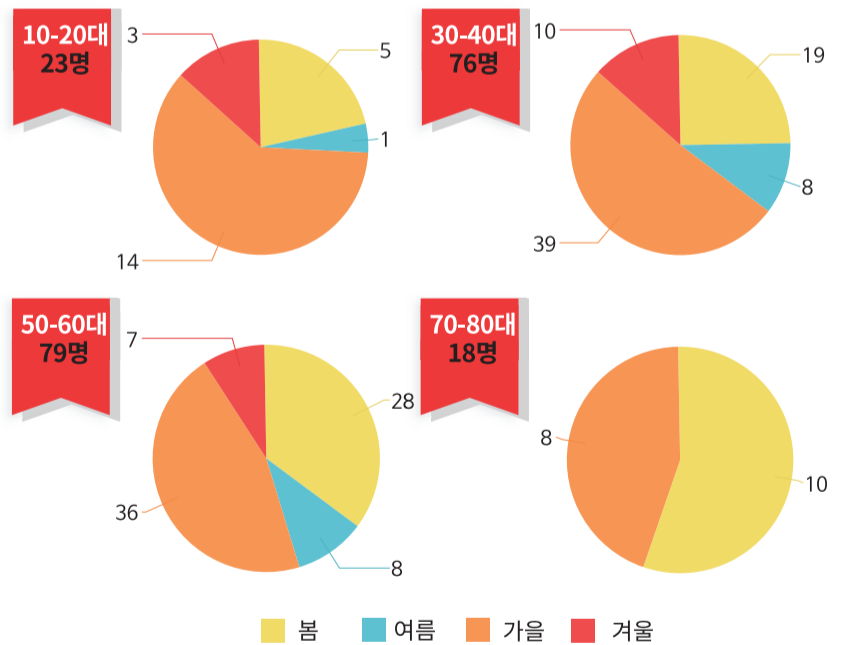
-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 60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 연령대 : (        )        (        )        (        )        (        )
- 남북통일은 되어야 할까요?  
네    /    아니오

### 지난(59)호 설문 결과

주제 : 나는 어떤 계절이 좋은가요?



#### 공지사항

#####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 장 소**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
- 기 간** 2023.09.13-09.14
- 마 감** 2023.08.24(목)
- 참가비** 7만원(1박 2일, 1인실)
- 문 의** 053-250-3077 · 3114 / 010-9461-3077(문자문의)

##### 50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야간)

- 장 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 기 간** 2023.09.07-10.26
- 마 감** 2023.08.29(화)
- 참가비** 12만원(7주간, 매주 목)
- 문 의** 053-250-3077 · 3114 / 010-9461-3077(문자문의)

##### 독자 투고 모집

이야기가 있는  
가족사진/편지글/노년의향기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dgsalesio@naver.com  
※ 보내실 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마 감** 2023.08.11(금)
- 문 의** 053-250-3077 · 3114

#### 전시회

##### 사부작사부작 캘리를 쓰다

- 평신도와 수녀들이 함께하는 캘리 그래피-
- 장소 및 주최** 예담갤러리
- 기 간** 2023.08.14-08.25(주일 휴관)
- 문 의** 010-3738-0485